

추석, 풍성한 문화를 만나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경기 등 여러 상황으로 다소 어수선하다. 그럼에도 마음만큼은 풍성하다. 문화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무척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준비한 '문화 상차림'을 소개한다.

ACC, '보름달 아시아' 등 다채...광주박물관, 뮤지컬 '깃털 피리' 온라인 공연
광주문예회관, 한가위 콘서트...광주과학관, 가족극장·전통놀이·보름달 관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9일부터 12일까지 비대면 공연 상영 프로그램 '추석은 ACC와 함께'를 운영한다. 올 상반기에 장제작한 공연 중 8편을 ACC 유튜브 채널과 문화 포털로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국제 공동 창작 공연인 '전쟁 후에', 어린이·청소년 연극 '길 위의 아이', '달을 물으래', '울어버린 빨간 오니'가 펼쳐진다. 또한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쉬나메'를 원천으로 제작한 '연대(Solidarity)', 고전 최초의 한문희곡 '동상기'를 소재로 한 '판소리극 동상기', 바리데기 설화를 뮤지컬로 만든 '블랙 퍼레이드' 등 어린이·가족을 위한 대중 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어린이문화원은 추석 한마당 '보름달 아시아(FULL MOON ASIA)'를 운영한다. 어린이창작실현실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기 예술 방앗간', '한가위 알록달록 전자 요리', '달빛따라 초롱초롱'을 유료로 진행한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소원 팽이 만들기', '보름달 소원등', '한가위 소꿉을 담아보아' 연공공예수(워크숍)이 열린다.

추석특집 어린이 공연프로그램은 어린이문화원 로비와 어린이극장에서 진행한다. 9-10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 전래동화와 동요를 소재로 한 공연 '이야기꾼 호랑호랑이', 대형인형 행진 '가족나들이', 대형인형 거리극 '걸리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관람권은 ACC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ACC 보름달에 숨겨진 선물을 찾아라!'는 전당에 숨겨진 정보 무늬(QR 코드)를 찾아 낱말 짝 맞추기(퍼즐)를 완성하면 된다.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깃털피리' (9일-12일)를 선보인다. 동물 친구들이 함께 숲속에서 가장 멋진 노래를 만들어내는 창작 뮤지컬로 동물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 중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여수사파리 미니 오토마타' 체험키트를 증정(가상현실체험 사전예약자)하며 랜덤뽑기, 엮어엮어 굴비만들기(누리집 사전 접수),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전통문화관

전통문화관은 '추석이네! 도란도란'을 오는 11일 선보인다. 전통놀이 체험과 전시, 공연이 어우러져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한가위 관련 세시풍속 전시를 비롯해 솟을대문과 너털마을 일대에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농구 등 전통놀이놀이연구소의 진행으로 전통놀이 즐길 수 있다.

지역 청년 국악인의 멘토링 지원무대 '청·국·장(場)'은 청년 국악인의 재능과 실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멘토와 청년 국악인 간 멘토링 지원무대로 진행된다.

■광주시립미술관

'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

'여행! 지금 떠납니다' 전

'빛2022 수집된 풍경들' 전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열린다. 두 곳 모두 추석 당일만 휴관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영원을 빛은, 권진규'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리얼리즘 조각의 상징으로 불리는 권 작가의 대표작 '지원의 열굴'을 비롯해 인물상, 동물상, 불상 등 조각작품 120여점과 아카이브, 드로잉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미술관에서는 임현재·김은경 작가 등이 참여한 '여행! 지금 떠납니다'전이 열리고 있으며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시립미술관 아카이브전도 진행중이다.

하정웅미술관에서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2 수집된 풍경들'전이 열리며 시립사진전시관에서는 김규식·박남사·윤태준 작가가 참여한 '사진의 경계'전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는 기획초대전 '박상화 소묘공정'전이 열리고 있으며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작품 'Good Day, Good Night'도 눈길을 끈다.

전남도립미술관 전시 가운데는 6일 개막한 '이경모 사진전 : 역사가 된 찰나'전이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기록사진계의 거목 이경모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사진 140여 점과 그의 생애가 담긴 자료들이 전시된다.

광양 출신인 이 작가는 호남 신문사(현 광주일보의 전신)



지난 2019년 ACC에서 진행한 '보름달 아시아' 장면.

◇광주문화예술회관

추석 연휴기간(8-11일)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을 밤을 밝혀 줄 흥겨운 우리 가락 무대를 마련했다.

먼저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가 8일 한가위 콘서트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무용 '화선무', 창작소리 '인당수', 실내악 '고향의 봄', 창작무용 '태평성대', 타악협주곡 루트머지만의 특색있는 국악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9일 공연은 프로젝트 그룹 앙상블 려이 준비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통무용 '연흥무'와 '낙타의 노래'를 초연하는 의미 있는 무대다.

추석 당일에도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이어진다. 추석인 10일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를 주제로 '아리랑 연곡', '상사목', '등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국악을 쉽고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는 11일 '추석특집 - 한가위만 같이'를 주제로 또한번 국악상설 무대를 가득 채운다. 가야금병창과 합북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등을 선보이며 특히 TV 프로그램 '조선 판스타' 우승자 김산옥이 임재현이 함께 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

9일부터 12일(11일 휴무)까지 한가위 특별행사로 '추석엔 과학관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한가위 가족극장을 운영한다. 9일 '슈퍼배드' (오전 10시), 라따뚜이(오후 2시) 10일 미니언즈(오전 10시), 12일 몬스터호텔(오전 10시)을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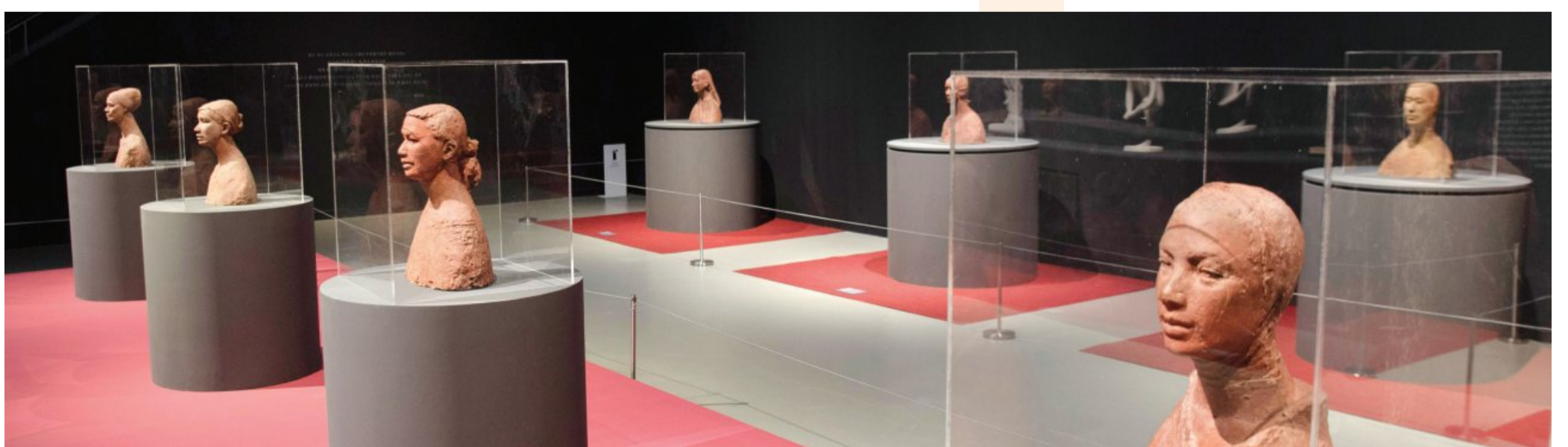
과학관 정문 필로티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활쏘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이경모 사진전 : 역사가 된 찰나' 전

'애도:상실의 끝에서' 전

'윤재우:색채의 미' 전



의 사진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역사적인 사건과 한국 근현대사 격동기의 현장, 전국 각지의 풍경과 문화재,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애도:상실의 끝에서'전은 생태계 재앙, 무기 개발과 전쟁, 글로벌 전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광주과학관 '매지버블 벌룬쇼'

과학놀이 교육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별빛누리관 1층 강의실에서는 'LED를 이용한 호롱불 만들기' 수업이 4차례(오전11시·오후1·2·3시)에 걸쳐 열리며 11일 전통 노래개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층 상상홀에서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이용한 '팝아트 드로잉 쇼'를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은 과학관에서 진행 중인 '2050 탄소제로시대' 특별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추석 당일 보름달을 관측하는 행사는 오후 8시 시작된다. 별빛누리관 야외에서 펼쳐지는 달 관측행사는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1층 스팀(STEAM)랩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전통 청사초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후 2시부터 상상홀에서 '매지버블 벌룬쇼'를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 잘된 거야'

광주극장 신작 개봉

'성적표의 김민영' '다 잘된 거야' '한여름밤의 재즈'

광주극장도 추석연휴기간 3편의 신작을 개봉한다.

8일 개봉하는 '성적표의 김민영'은 졸업하고 스무살이 되어도 그 시절의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화', '민영' 두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스무살의 버디무비다. 이재은, 임지선 감독이 공동연출했으며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경쟁(발견) 대상 등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각종 해외영화제에 초청되며 올해 최고의 한국독립영화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다 잘된 거야'는 프랑스의 젊은 거장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21번째 작품이다. 4번째 칸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갑자기 쓰러진 아빠 '앙드레'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도와 달라고 부탁받은 딸 '엠마뉴엘'의 조금 다른 작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원한 하이틴 스타 소피 마르소가 딸 '엠마뉴엘'을, 프랑스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앙드레 뒤솔리에가 아빠 '앙드레'를 연기해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9월 11일에는 '한여름밤의 재즈'가 개봉한다. 낭만적인 풍경과 전설적인 뮤지션의 공연이 한데 어우러진 1958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실황 영화다.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돈나, 케이트 모스 등 시대의 아이콘이 선택한 전설적인 사진작가 버트 스톤이 연출을 맡아 탁월한 미적 감각으로 축제의 순간을 포착해냈다. 루이 암스트롱, 마할리아 잭슨, 척 베리, 게리 멀린 등 화려한 뮤지션의 공연을 즐기는 당시 관객들의 모습과 바다의 낭만과 재즈의 열정을 가득 담아냈다.

11일 오후 3시 10분에는 영화 '말아'의 GV가 열린다. 광민승 감독과 주연을 맡은 심달기, 우효원 배우가 참석한다.

이외에도 로맨스 영화의 걸작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와 '풀타임', '썬다운', '뱅크시'도 추석 연휴 기간 상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적표의 김민영'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